

# 총선 우세 지역구 국힘 “85곳” vs 민주 “150곳”

## 국힘-민주 자체 판세 분석

수도권 여 24곳·야 85곳 우세  
부산·울산·경남선 국힘 강세  
민주, 호남·제주 싹쓸이 전망

4·10 총선을 열흘 남겨둔 31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각각 85곳, 150곳을 ‘우세’ 지역으로 꼽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최대 승부처인 서울·경기·인천 수도권에서는 국민의힘은 24곳을, 민주당은 85곳을 우세 지역으로 분류했다.

전체 254개 선거구 가운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선대위 및 시도당 자체 판세 분석(지난 29일 기준) 상황을 종합한 결과, 국민의힘은 경합 우세와 우세 지역이 85곳이었고 민주당은 경합 우세와

우세가 150곳으로 나타났다. 이번 판세는 ‘우세-경합우세-경합-경합열세-열세’ 등으로 구분했으며, 경합우세 이상인 경우에만 우세 지역구로 분류됐다.

국민의힘은 서울 선거구 49개 가운데 15개를 ‘우세’ 또는 ‘경합우세’로 파악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강남갑(서명옥), 강남을(박수민), 강남병(고동진), 송파을(배현진), 서초갑(조은희), 서초을(신동욱) 등 전통적인 강남권 ‘텃밭’은 안정권으로 봤다.

또한 송파갑(박정훈), 강동갑(전주혜), 양천갑(구자룡), 동작갑(장진영), 동작을(나경원), 용산(권영세), 중·성동갑(윤희숙), 중·성동을(이혜훈), 영등포을(박용찬) 등에서도 해볼 만하다는 분위

기가 읽힌다.

민주당은 강서갑·을·병(강선우·진성준·한정애)과 강북갑·을(전준호·조수진) 등 최대 23곳에서 우세한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총선까지 지금 같은 추세를 몰고 가면 마포갑(이지은)과 서대문갑(김동아) 등 경합지 20여곳에서도 승기를 잡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60석이 걸린 경기의 경우 국민의힘은 7곳, 민주당은 51곳에서 우위를 점할 것으로 자체 분석했다.

이번 총선 최대 격전지로 불리는 ‘낙동강벨트’를 포함한 부산·울산·경남도 치열하다.

먼저 국민의힘은 경남 16곳 중 13곳에서 승산이 있다고 봤다. 부산의 경우 18곳 중 9곳에서 우세한 것으로 보고 있다. 울

산은 6곳 중 4곳을 우세 지역구로 분류했다.

민주당은 ‘낙동강벨트’의 의석 절반을 가져가는 게 목표다.

전국 선거판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해 온 충청권은 이번에도 혼전세를 보이는 가운데 야당 쪽으로 미세하게 힘이 실리는 형국이다.

28개 대전·충청·세종 선거구 가운데 국민의힘이 우세하다고 보는 곳은 5곳뿐이다. 반면 민주당은 충남 11곳 중 6개 선거구를 당선 안정권으로 판단했다. 충북은 8곳 중 5곳을 우세 또는 경합우세로 분류했다. 대전의 경우 선거구 7곳 중 5곳이 우세하고, 1곳은 경합우세로 봤다.

여야는 보수세가 강한 대구·경북(TK)와 강원에서 큰 이변이 없을 것으로 예상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전체 25개 TK 선거구에서 경북 경산(조지연)과 대구 중·남(김기웅) 등 2곳을 제외한 나머지 23개를 우세 지역구로 봤다.

강원의 경우 8개 선거구 가운데 춘천·철원·화천·양구갑(김혜란)을 제외한 7곳에서 승기를 잡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민주당은 강원에서 최소 1석을 추가 확보하는 게 목표다. 반대로 민주당 ‘텃밭’이나 다름없는 광주·전남·전북에서 민주당은 의석 전석 사수가 가능할 것으로 자신했다. 광주 8개, 전남 10개, 전북 10개 등 총 28개의 의석을 가져올 것으로 의심치 않는 분위기다. 제주 3개 선거구 역시 민주당 후보들의 당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파악된다.

서울=김선욱 기자



윤석열(왼쪽부터) 대통령, 김진표 국회의장,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부활절인 31일 서울 강동구 명성교회에서 열린 ‘2024 한국교회부활절연합예배’에 참석해 박수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원희룡 국민의힘 계양을 후보가 31일 인천 계양구 가나안교회에서 열린 부활절 예배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뉴스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달 30일 광주 서구 풍암호수공원에서 기자회견을 마치고 지지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나건호 기자

## 尹 “더 낮은 자세로 국민 목소리 귀기울이겠다”

### 부활절 연합예배 참석

윤석열 대통령은 부활절인 31일 “정부와 함께 더 낮은 자세로 국민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서 국민의 아주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겠다. 어렵고 힘든 분들이 일어설 수 있도록 따뜻하게 보살피고 힘을 드리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강동구 명성교회에서 열린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당선인이었던 2022년 4월, 취임 이후인 지난해 4월에 이어 세 번째로 부활절 연합예배에 참석했다. 지난해와 달리 김건희 여사는 함께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축하 인사에서 “지금 우리는 나라 안팎으로 심각한 도전과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이런 때일수록 부활의 참

뜻을 되새겨 모두가 함께 실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인류를 죄에서 해방시키는 무한한 사랑을 보여주셨다”며 “모두가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사랑과 연대의 정신을 실천하는 것이 부활의 참뜻을 이뤄가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이날 오전에도 페이스북을 통해 “예수님의 인류에 대한 사랑을 되새기고 실천하는 부활절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부활절 연합예배에는 주요 교단 지도자와 성도 7200여명이 참석했다. 정치권에서는 김진표 의장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 대통령실 성태윤 정책실장, 이도훈 홍보수석 등이 자리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 중앙선거위 “4·10총선 유권자 4428만명… 50대 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21대 총선 대비 0.6%(28만 5764명) 증가한 총 4428만11명이 참여한다고 31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4428만11명은 국내 선거인명부에 올라있는 4425만191명과 재외선거인명부의 2만8092명을 합한 규모다. 국내 선거인명부를 기준으로 보면 18~19세 89만5092명(2.0%), 20대 611만8407명(13.8%), 30대 655만9220명(14.8%), 40대 785만7539명(17.8%), 50대 871만1608명(19.7%), 60대 769만5466명명

(17.4%), 70대 이상 641만4587명(14.5%)이다. 성별로는 남자가 2192만 4576명(49.53%), 여자가 2233만8197명(50.47%)이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364만605명(26.2%)으로 가장 많고, 세종이 38만7344명(0.7%)으로 가장 적다.

국내 선거인명부는 3월19일 현재 구·시·군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확정된 것이다. 지난 20일 이후 전입신고를 한 사람이 선거일에 투표하려면 이전 주소지에서 투표해야 한다고 선관위는 설명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 야권 ‘부활절’ 종교계 표심 잡기 온힘

### 이재명 “희망의 부활을 꿈꾼다” 조국 “그리스도 고난 끝 부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녹색정의당 등 야권이 31일 부활절을 맞아 “위대한 주권자의 힘으로 더 나은 내일을 위한 희망을 부활시켜 내리라 믿는다”고 입을 모았다. 4·10 총선을 10일을 앞두고 종교계 표심을 잡기 위한 메시지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더 나은 내일을 향한 희망의 부활을 꿈꾸며’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예수께서 베푸신 사랑의 은혜가 온 누리에 함께하길 소망한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부활의 영광 뒤에는 스스로를 던져 가장 힘없는 이들을 살려내고자 했던 모진 고난과 희생의 시간이 있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가장 낮은 곳에 있는 국민의 삶을 지켜

내는 길, 민생경제 한파를 맨몸으로 견뎌내는 국민의 버팀목이 되는 길, 이 시대 정치와 국가의 책무도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련과 고통 속에서 회복과 도약을 향한 우리의 열망과 의지는 더욱 견고해졌다”며 “위대한 주권자의 힘으로 더 나은 내일을 위한 희망을 부활시켜 내리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신현영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도 서면브리핑을 통해 “부활절 정신을 바탕으로 정치가 국민들을 위로할 수 있도록 민주당은 위기 극복과 따뜻한 대한민국을 위해 앞장서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견디기 어려운 핍박과 고난 끝에 맞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고 적었다.

그는 “오늘날 진정 필요한 믿음과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 부활로 우리 모두의 결

에 새롭게 살아나 온누리에 번지길 기원한다”고도 전했다.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을 통해 희망의 메시지를 안겨준 부활절 전야에 저는 어쩔 수 없이 직업병처럼, 낡은 정치의 소멸과 새로운 정치의 부활을 생각했다”는 페이스북 메시지를 냈다.

심 원내대표는 “낡은 정치의 무덤에서 새로운 정치의 빛과 생명이 부활할 것”이라며 “윤석열 정권의 거대한 퇴행도 물어야 하지만, 기대와 실망과 퇴행의 악순환을 반복하는 낡은 정치도 파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에 맞선 정치연합을 만들고, 국민들께 심판을 호소하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에게 윤석열이 가고 나서 들어설 정부가 다시는 실패하지 않을 시민의 정부가 될 것이라는 희망을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전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 총선 투표소 광주 358곳·전남 806곳 확정

광주·전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소를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광주는 358곳, 전남은 806곳이다.

시 선관위는 각 세대에 투표안내문과 정당·후보자의 선거공보물을, 거소투표 신고자 2000여명에게는 거소투표용지를 함께 발송했다. 영내 또는 부대 등에 기거하는 이유로 각 세대에 보내주는 선거공

보를 볼 수 없어 선관위에 발송을 신청한 군인과 경찰공무원 1000여 명에게도 선거공보를 보냈다.

도 선관위도 거소투표 신고자 5272명과 군인과 경찰공무원 1160명에게 선거공보 발송작업을 마쳤다.

선관위는 어르신과 장애인 등 중증이동이 어려운 선거인이 투표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1층 또는 승강기 등 설비 시

설을 최우선으로 확보했다.

투표안내문에는 투표소가 설치된 건물명과 약도가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nec.go.kr) 투표소 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후보자에 대한 정보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nec.go.kr)와 정책공약마당(http://policy.nec.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곽지혜·김은지 기자